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토론회 기조연설

'06.1.25(수), 14: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외국인투자와 한국경제

2006. 1. 25

재정경제부 차관
권태신

< 목 차 >

I . 인사 말씀	1
II. 최근 경제상황과 외국인투자의 중요성	3
III. 외국인투자동향 및 정책방향	7
IV. 맺음 말씀	11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부 차관 권태신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현정택 원장님 이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서도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토론자 여러분들과
자리를 빛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이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던 한국경제에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저 자신도 과거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담당하며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상황이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변모했습니다.

우선 국내자본과 기술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외국자본의 도입형태도 공공차관 도입에서
민간의 직간접 투자에 의한 진출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의 한국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평가 역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새롭게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현 시점에 있어
이러한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향후 외국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잣대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II. 최근 경제상황과 외국인투자의 중요성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고유가, 환율하락,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규제개혁,
공정·투명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자생적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꾸준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 성장률(%):(03)3.1→(04)4.6→(05)^o3.9 / (05.1/4)2.7→(2/4)3.3→(3/4)4.5→(4/4)^o4.8

그러나, 우리경제가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내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투자의 문제입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설비투자는
2000년대 이후 경기부진, 고임금,
중국의 부상, 기업의 위험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60년대 이후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경제는
경제구조의 고도화 추세와 함께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 성장률(%): (60년대)7.7→(70년대)7.2→(80년대)8.7→(90년대)6.1→(00년대) 4.6

이러한 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여타 선진국에서처럼 경제의 성숙에 따른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 경제가 아직 소득 2만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 추세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선진국으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는
국내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기술이나 경영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우리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신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의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80년대 이후 개방과 외자유치를 통해
유럽의 변방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상회하는
선진 부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가깝게는 아시아의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이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고도성장의 기반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과 제도,
그리고 기업활동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 등
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Ⅲ. 외국인투자동향 및 정책방향

공공차관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90년대 중반이후 본격화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99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액수가
외환보유액 증가분의 27%를 차지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인 FDI 감소 추세로 인해
외국인투자액수가 다소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 규제완화, 인센티브 확충,
Invest KOREA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2년 연속 100억불을 상회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 FDI(억불, 신고기준): ('98)88 → ('99)155 → ('01)113 → ('02)91
→ ('03)65 → ('04)128 → ('05)115.6

또한 투자건수 및 투자국가 수 등에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그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를 고도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유럽의 강소국들 및 아시아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2005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액 비율은
8.1%에 불과하여, 전세계 평균 21.7%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FDI 잠재력 지수는 140개국 중 20위인데 반해
FDI 성과지수는 109위에 머물러
유치 잠재력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
크게 못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 확충을 위해
보다 많은 외국자본을 받아들일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정책을 운용해 나가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내외국자본의 동등대우를 통해
공정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자본의 국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외국자본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 하에서
국내외 자본이 각자의 기술과 경영기법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우리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후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의 특징은
자본·기술·인력 등의 생산요소가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으므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생산요소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제도만이
우리 본래의 것이고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제도의 혁신을 통해
세계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선진형 통상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IV. 맺음 말씀

최근 국내에서는 외국자본을 바라보는
매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자본의 폐해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이후 달라진
우리사회의 인식변화가
건전한 외국인투자를 저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외국 언론 등에서는
한국내 반 외자정서가 만연해 있다며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자본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이해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자본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한국경제 발전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외국자본 유치에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이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이제 외국자본을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하면서도
국내기업가들의 의지를 저하시키지 않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접점을 찾고,

이를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혜안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외국자본이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맺음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